유진투자증권

Green Industry

2022.1.3

News Comment

EU 그린텍소노미 원전, 천연가스 포함 불구 독소 조항 담고 있어 시장 활성화 요원

(Overweight)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14_ bhh1026@eugenefn.com

원전에는 폐기물 안전 처리, 천연가스는 탄소배출 한도 규정

EU 집행위가 그린 텍소노미의 초안을 발표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을 허용하는 초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산업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막상 허용의 조건을 보면 의구심이 커진다. 원전의 그린 텍소노미 포함 조건으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 훼손이 없음을 규정했다. 현재 유럽전역에 고준위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뿐이다. 여러 국가들이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민들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원전의 그린 텍소노미 포함이 오히려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되는데에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 발전은 더 심하다.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금융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 단위(kwh)당 270g 이하의 탄소배출을 해야된다. 프랑스의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은 429g/ kwh 이었다. 추가적인 설비 없이는 EU 에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신설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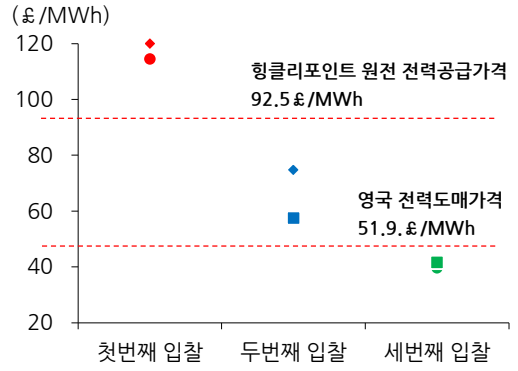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경제성 확보 더 어려워져

영국의 힝클리 포인트 원전이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유럽의 원전이다. 이 원전은 92.5 파운드/MWh 의 가격으로 전력을 35 년동안 시장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에 반해 3 번째 국가입찰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영국의 해상풍력 단지는 39 파운드/MWh 로 15 년간 시장에 공급하는 조건이다(도표 1 번 참조). 고정요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원전은 해상풍력 대비 5 배 이상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텍소노미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 건설 비용까지 추가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이상 비교할 가치도 없어진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와의 공급 마찰과 이상 기후로 EU 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설비대비 월등히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이 추가되면 EU 에서의 천연가스 발전 신설의 여지는 없어진다.

독일 반대 표명,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기조 변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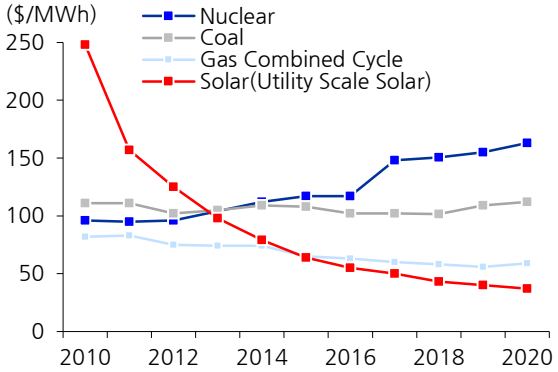
집행부의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포함 결정에 대해 독일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표대결을 할 것이고, 소송전이 진행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위의 초안으로 결정되면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전력산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저항 없이 원전 건설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 한해서 원전의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원전의 건설은 10 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30 년까지 40%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켜야 하는 EU 에게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석탄비중이 너무 높고,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일부 국가들을 배려한 정책일 뿐 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EU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성까지 갖춘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심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도표 1. 영국 해상풍력 공급단가 급락 추세, 원전대비 월등히 낮아져



자료: BNEF,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미국 발전원별 LCOE, 원전은 경쟁력 없어



자료: Lazard,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